

한국어 어휘 변천 연구

김태곤*

이 논문은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후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다룬 것으로 ‘갓나히, 거리다, 가야미, 갓으로, 갓다, 거슬다, 거우로, 간난하다, 거플, 갓다’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휘가 변화하는 양상도 여러 가지인데 어형에 기준을 두어, ① 어형이 소멸된 것, ② 어형이 변화된 것, ③ 어형이 분화된 것, ④ 어형이 유지된 것 등으로 분류하여 위에 제시한 어휘의 변천 과정을 고찰했다.

예를 들어, ‘갓나히’는 ‘계집아이’의 의미에서 19세기에는 ‘창녀’의 뜻으로 쓰이다가 소멸되었다. ‘거리다’는 17세기까지 ‘구제하다’의 의미로 쓰이다가 소멸되었다. ‘가야미’, ‘갓으로’, ‘갓다’, ‘거슬다’, ‘거우루’의 어형은 후에 변하여 각각 ‘개미’, ‘거꾸로’, ‘깎다’, ‘거스르다’, ‘거울’이 되었다. 또 ‘간난하다’는 후에 어형이 분화되어 ‘가난하다’와 ‘간난하다’가 되었고, ‘거플’은 후에 어형이 분화되어 ‘꺼풀’과 ‘거푸집’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갓다’는 15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형과 의미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 주제어: 어휘, 변천, 어형, 의미

I. 서론

세상 만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변천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국어를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세국어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어휘 변천 연구의 일환이다.

어휘의 변화는 그 양상도 여러 가지인데, 어형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변하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語形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消滅된 것, ② 語形이 變化된 것, ③ 語形이 分化된 것, ④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나누어, 이것에 해당하는 어휘의 어형이나 의미의 변화 과정을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하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email: kimtgs@jejunu.ac.kr)

© 접수일(2011년 9월 29일), 수정일(2011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7일)

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유형에 따른 어휘를 선정하여 고구하였는데, 어형이 소멸된 것으로 ‘갓나히’와 ‘거리다’를, 어형이 변화된 것으로 ‘가야미’, ‘갓으로’, ‘갓다’, ‘거슬다’, ‘거우로’를, 어형이 분화된 것으로 ‘간난하다’, ‘거플’을, 어형이 유지된 것으로 ‘갓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 인용된 용례의 문헌과 그것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順)

- <警民> 警民編 1658(改刊本)
- <敬釋> 敬信錄諺釋 1796
- <敬信> 敬信錄諺解 1880
- <光千> 光州千字文 1575
- <救簡> 救急簡易方 1489
- <國漢> 國漢會語 1895
-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 <南明> 南明集諺解 1482
- <楞嚴> 楞嚴經諺解 1462
- <老諺> 老乞大諺解 1670
- <同文> 同文類解 1748
- <東續> 東國續三綱行實 1617
-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 1632(重刊本)
-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 1481(初刊本)
- <馬諺> 馬經抄集諺解 仁祖朝(1623~1649)
- <武藝> 武藝圖譜通志諺解 1790
- <物名> 物名類放 1824
- <朴諺> 朴通事諺解 1677
- <翻老> 翻譯老乞大 16세기초
- <翻朴> 翻譯朴通事 16세기초
- <法華> 妙法蓮華經諺解 1463
- <兵學> 兵學指南 1787
- <三綱> 三綱行實圖 1481
- <釋譜> 釋譜詳節 1447
- <石千> 石峰千字文 1583
- <禪家> 禪家龜鑑諺解 1579(普賢寺本), 1610(松廣寺本)
- <宣內> 內訓 1573(內賜本)
- <宣小> 小學諺解 1587(宣祖版)
- <松江> 松江歌辭 1747
-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 <兒學> 兒學編 1907
- <女範> 女範 英祖朝
- <女四> 女四書諺解 1736
- <譯補> 譯語類解補 1775
- <譯解> 譯語類解 1690
- <五倫> 五倫行實圖 1797
-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 <龍歌> 龍飛御天歌 1447
- <圓覺> 圓覺經諺解 1465
- <月釋> 月印釋譜 1459
- <月千> 月印千江之曲 1447
- <類合> 新增類合 1576
- <六祖> 六祖法寶增經諺解 中宗朝(1506-1544)
- <註千> 註解千字文 1804
-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 <重捷> 重刊捷解新語 1781
- <胎產> 諺解胎產集要 1608
-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 <漢清> 漢清文鑑 英祖朝(1724-1776)
- <訓蒙> 訓蒙字會 1527(東京大學本)

II. 語形 消滅型

1. 갓나히

‘갓나히’는 15세기에 ‘계집아이’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쓰였다.

- 사히 소리 갓나히 소리<釋譜 19:14>
- 남진 아니 어른 갓나히 월경슈 무든 거슬<童女月經衣><救簡 2:54>
- 갓나히도<女孩兒><讎朴 上:45>
- 스나히와 갓나히 일씩이러니<男女百口><宣小 6:71>
- 스나히가 갓나히가<小廝兒那女孩兒><讎朴 上:55>
- 갓나히 : 女孩兒<訓蒙 上:32>

김태곤

위의 예문을 보면, ‘갓나히’는 ‘스나히’(‘사내아이’의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고, 16세기 초 문헌인 <翻譯朴通事>와 <訓蒙字會>에서는 ‘갓나히’ 대신 자음동화된 ‘간나히’로 표기하였다.

17세기는 ‘간나히’로만 표기되며 의미는 ‘계집아이’이다.

머리 도느니는 간나히라<胎産 10>
스나히와 간나히 곶히요미 이시며(男女有別<警民 26>改刊本)

이 말에 대해 18세기에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간난희’가 주목된다.

갓나희들이 여러 層이 오래<古時調 海東歌謠>
海棠花 갓나희로다<古時調 海東歌謠>
간나히 가는 길홀 스나히 에도드시<古時調 宋江>
간난희 가는 길홀<古時調 靑丘永言>

이 말이 19세기 말에는 ‘간나히’로 나타나는데 의미가 ‘姦女’의 뜻으로 바뀌었다.

간나히년(姦女)<國漢 p.367>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자.

간난희 창 : 娼(兒學 上1)
간나희 : (명) 賣春婦. (갈보).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간나 : (명) ‘계집애’의 사투리. <문세영, 朝鮮語辭典>
간나희 : (명) ① ‘갈보’의 사투리. ② ‘간사한 계집’의 사투리. <上同>
간나 : (명)<방> ① 계집. ② 갈보. (함경). <이희승, 국어대사전>
간나 : (명) ‘계집아이’의 방언. (평북, 함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간나희 : (명) ① ‘계집아이’의 잘못. ② ‘갈보’의 잘못. <上同>

위를 보면, <兒學編>과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에서는 ‘간나희’를 ‘娼女’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서는 ‘갈보’와 ‘간사한 계집’의 사투리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는 함경도 방언에서 ‘계집’과 ‘갈보’의 뜻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현재는 ‘간나’는 ‘함경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에서 ‘계집아이’의 뜻으로 쓰이고, ‘간나희’는 잘못된 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간나희’는 20세기 초까지만 쓰이고, 20세기 중엽부터는 중부방언에서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갓나히’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간나희(계집아이)(15세기)>간나희(계집아이)(16세기)>간나희(娼女)(19세기~20세기 초)(이후 소멸)

2. 거리다

‘거리다’는 15세기에 다음과 같이 ‘건지다’, ‘구제하다’, ‘거르다’의 뜻으로 활발히 쓰인 어휘였으나¹⁾ 후에 사라져 소멸어가 되었다.

① 건지다

撈는 므레 거릴 씨오<月釋 序8>
人天 고기를 거리샤디(漚人天魚)〈金三 5:25〉

② 救濟하다

拯은 거려 널씨오<月釋 序9>
어즐하야 므르논 일흔 性을 거리시려(拯昏迷之失性)〈法華 序16>
救하야 거려(救濟)〈法華 2:134>
목 물름 거릿고져 호되(欲濟渴)〈法華 4:91>
싸혀 거리샤(拔濟)〈金三 4:37>
群生을 거려 濟渡하리오(拯濟群生)〈金三 5:47>

③ 거르다(漚)

힌 출조밥 반 되틀 글힌 므레 즈마 듯다가 거려 내야<救簡 1:2>
즈의 거려 앓고(漚去滓)〈救簡 6:88〉

이 말이 16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어형이 ‘거니다’로 되어 ‘구제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거닐 제 : 濟<光千 24〉

17세기에도 ‘구제하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어형은 역시 ‘거니다’이다. 그런데 이 말은 17세기까지만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심 가운데 싸덜더니 거녀셔 이튼날 다시 사라셔(自投井中拯出翌乃甦)〈新續 烈1:68〉

지금까지 살펴본 ‘거리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리다(건지다. 구제하다. 거르다)(15세기)>거니다(구제하다)(16세기~17세기)(이후 소멸)

1) 성환갑(2010), “固有語와 漢字語의 調和”, 語文研究, 145호,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45.

Ⅲ. 語形 變化型

1. 가야미

현대국어 ‘개미’는 중세국어에서는 ‘가야미’라고 했는데 다음 용례와 같다.

가야미 사리 오라고<月千 1:62>
가야미며 벌에를 그지업시 주기던 사르미니<月釋 23:75>
줄혀 든니는 가야미는 이운 비남기 오르놋다<行蟻上枯梨><杜初 15:56>
가야미 의 : 蟻<訓蒙 1:23>

이 말이 같은 시기에서 다음 예와 같이 ‘개야미’라고도 했는데 이는 |모음역행동화한 것이다.

그되 이 굼컷 개야미 보라<釋譜 6:36>
개야미 뜬 수른 臘月엿 마시 仍ᄃ야 잇고<蟻浮仍臘味><杜初 10:2>
벌에며 개야미를 주어<拾蟲蟻><宣小 6:93>
개야미 의 : 蟻<類合 上15>

이 말은 17세기에는 어형이 ‘개야미’로만 나타나는데, 특히 앞의 <杜詩諺解 15:56> 초간본에서 ‘가야미’로 쓰였던 것이 아래 중간본에서는 ‘개야미’로 나타난다.

개야미 뜬 수른 臘月엿 마시 仍ᄃ야 잇고<蟻浮仍臘味><杜重 10:2>
줄혀 든니는 개야미는 이운 비남기 오르놋다<行蟻上枯梨><杜重 15:56>
개야미<螞蟻><譯解 下35>

이 말은 18세기에는 ‘가야미’로 표기된 것만 발견되는데, 이러한 점은 전통적으로 쓰인 ‘가야미’가 언중들의 입을 통해 계속 전수되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된 ‘개야미’도 함께 쓰는 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18세기에 두 어휘가 공존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19세기에는 ‘개야미’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괴 빗출 죠ᄃ야 가야미 븐듯 ᄃ야<照旗色蟻附><兵學 1:14>
가야미를 구ᄃ매 과거의 장원ᄃ고<敬釋 8>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 문헌인 <國漢會語>에서는 ‘개야미’가 쓰였다.

개야미 의 : 蟻<國漢 p. 374>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야미 : <명> 蟻 (略, 개미).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 가야미 : <명> ‘개미’의 옛말. <문세영, 朝鮮語辭典>
- 개미 : <명> 막시류(膜翅類)에 붙은 곤충. <문세영, 朝鮮語辭典>

위를 보면,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에는 ‘가야미’를 기본어로 하고, ‘개미’는 준말로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개미’라는 단어가 언중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서는 ‘가야미’는 옛말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야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야미, 개야미(중세)>개미(20세기 초)

2. 갓으로

현대국어 ‘거꾸로’는 15세기에 ‘갓으로’와 ‘갓고로’로 다음과 같이 많이 쓰였다. 여기서 ‘갓으로’를 앞선 시기의 어형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말은 동사 ‘갓글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盂蘭盆은 갓으로 미요들요물 救하느다<月釋 23:96>
- 갓으로 아는 種애 나리라(生倒知種)<楞嚴 10:55>
- 이 므스멘 오히려 오슬 갓으로 님눅다(此心猶倒衣)<杜初 24:48>
- 라귀를 갓으로 트니(倒騎驢)<南明 下11>
- 邪曲을 信하야 갓고로 불씨<月釋 9:57>
- 吹毛를 갓고로 자바(倒握吹毛)<金三 3:54>
- 굶 출흔 峽 므를 갓고로 흘리리오(詞源倒流 峽水)<杜初 8:30>
- 돌히 내미니 그 우횃 실나못넙 듀물 갓고로 듣고(石出倒聽楓葉下)<杜初 23:30>

17세기에 쓰인 ‘갓고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굶 출흔 峽 므를 갓고로 흘리리오(詞源倒流 峽水)<杜重 8:30>
- 돌히 내미니 그 우횃 실나못넙 듀물 갓고로 듣고(石出倒聽楓葉下)<杜重 23:30>
- 우횃 구름 갓고로 드리윗게 호와 잇고(上頭縫着倒提雲)<老諺 下47>

‘갓고로’가 19세기에는 ‘거꾸로’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모음교체 현상을 보여준 표기이다.

거꾸루 달다(倒懸)<國漢 p.380>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자.

격구로 : (부) 倒に.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꾸로 : (부) ① 위가 아래로 앞이 뒤로 되는 모양. ② 사물이 그 자리를 바꾸어 아주 판것이 되는 모양. ③ 도리어. <문세영, 朝鮮語辭典>

거꾸로 : (부) 차례나 방향, 또는 형편 따위가 반대로 되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에서 조선총독부 간행의 <朝鮮語辭典>에 표기된 ‘격구로’는 지금의 ‘거꾸로’와 같은 발음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갓ㅁ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갓ㅁ로(15세기)>갓고로(15세기)>격구루(19세기)>거꾸로(20세기 초)(현재도 같음)

3. 깎다

현대국어 ‘깎다’는 중세국어에서 ‘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다.

① 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불휘를 버혀 거프를 갓ㅁ니(斬根削皮)杜初 16:58

갓글 삭 : 削<類合 下43>

②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마리를 갓ㅁ시고<月千 上44>

손소 머리 갓고 뫏고래 이셔<釋譜 6:24>

집 브리고 나가 머리 갓글 씨라<月釋 1:17>

위를 보면, 어간 다음에 모음이 오면 ‘갓ㅁ 갓근 갓글 ...’ 등과 같이 활용되고, 어간 다음에 자음이 오면 ‘갓고 갓는 ...’ 등과 같이 활용된다.

이 말의 17세기에 표기된 용례는 다음과 같은데 17세기 후반에 기본형 ‘깎다’ 표기가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경음화가 되고, 종성표기도 ‘ㅅ’이 아닌 ‘ㄱ’으로 <馬經抄集諺解>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음운이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손뚝이나 발뚝을 베어 내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 나타난다.

① 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불휘를 버혀 거프를 갓ㅁ니(斬根削皮)杜重 16:58

하늘히 조비나 石壁人面 | 갓근 듯호도다(天窄壁面削) <杜重 1:20>

②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 머리 갓는 칼 일백 즈르(剃頭刀子一百把) <老諺 下62>
- 더 머리 갓는 이를 불러 오라(叫將那剃頭的來) <朴諺 上39>
- 또 머리 깎고(又剃了) <朴諺 上51>
- 마리 깎는 이(剃頭的) <譯解 上30>

③ 손톱이나 발톱을 베어 내다.

주근 굽 든든흔 툽을 깎가 브리고(削去死蹄硬甲) <馬諺 下69>

이 말의 18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 의미는 17세기와 같았을 것이다.

① 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 깎글 작 : 斫(倭解) <下17>
- 두 손을 깎가 殺호고 <武藝 17>

②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마리 깎다(剃頭) <同文 上54>

이 말에 대한 19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 <註解千字文>에 나오는 ‘깎다’는 보수성에 의한 의례적인 표기이고, <國漢會語>에 나오는 ‘깎다’가 정상적인 예이다.

- 깎다(削出). 깎가내다(削出) <國漢 p.375>
- 깎글 극 : 剗削也 <註千 9>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자.

- 깎글 산 : 刪 <兒學 下9>
- 깎다 : (活) ① 削ろ. ② 剃ろ. ③ 直切ろ.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 깎다 : (他) ① 얇게 베다. 조금씩 저미다. ② 베어 주다. ③ 머리털을 자르다. ④ 값을 적게 부르다. <문세영, 朝鮮語 辭典>
- 깎다 : (동) ① 칼 따위로 물건의 가죽이나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②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③ 값이나 금액 을 낮추어서 줄이다. ④ 체면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다. ⑤ 구기 종목에서, 공을 한옆으로 힘 있게 치거나 차서 돌게 하다. ○ 공을 깎아 찼다. ⑥ 주었던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다. ○ 벼슬을 깎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위를 보면,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는 기존의 의미에 ‘값을 낮추어 부르다’의 의미가 추가된 것

김태곤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이 현재는 더욱더 의미가 추가되어, ‘체면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다’, ‘구기 종목에서, 공을 한옆으로 힘 있게 치거나 차서 돌게 하다’, ‘주었던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다’의 등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을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위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깎다’의 뜻풀이에 ‘손톱이나 발톱을 베어 내다’의 뜻이 없는데 누락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깎다’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깎다(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풀이나 털을 잘라 내다)(중세)>깎다(앞의 의미에 ‘손톱이나 발톱을 베어 내다’를 추가)(17세기)>깎다(17세기 의미에 ‘값을 낮추어 부르다’를 추가)(20세기 전반)>깎다(20세기 전반 의미에 ‘체면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다’, ‘구기 종목에서, 공을 한옆으로 힘 있게 치거나 차서 돌게 하다’, ‘주었던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다’를 추가)(현재)

4. 거슬다

15세기에 ‘거슬다’ 또는 ‘거스리다’가 다음과 같이 쓰였는데 ‘거슬다’가 占形이다.

天意를 小人이 거스려(小人逆天)(龍歌 74장)
아니 거스니(不自抗衡)(龍歌 75장)
날 거슬 도즈굴(拒我標悍賊)(龍歌 115장)
넘금 말을 거스스븐니(月千 上:14)
왼너근 거슬오 올흔너근 順흐니(左逆右順)(法華 2:210)

生死流를 거스려(月釋 2:61)
쁘들 거스려(逆情)(楞嚴 2:72)
次第 거스료문(圓覺 上二之一:30)
몹겨를 거스려 빗뚫 여러가미 어렵도다(逆浪開帆難)(杜初 22:56)
거스릴 역 : 逆(類合 下19)

17세기에도 ‘거슬다’와 ‘거스리다’가 쓰였다.

박시 구디 거슬고 좃디 아니흐니(朴氏牢拒不從)(新續 孝7:56)
몹겨를 거스려 빗뚫 여러가미 어렵도다(逆浪開帆難)(杜重 22:56)

18세기에도 ‘거슬다’와 ‘거스리다’가 쓰였다.

거스다 : 駁辭. 거스리다 : 逆(同文 上31)
역흔 즈식과 거순 식뵈 나의 이 글을 보고 화흐야(敬釋 12)
부디 거스리디 말으시고 아래사름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하쇼셔(重捷 8:3)

이 말이 19세기에는 ‘거스리다, 거사리다’로 표기된 것도 있지만 다음 예와 같이 ‘거슬으다’로 표기된 것도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까지 나타났던 ‘거슬다’는 19세기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신령을 경만하며 웃사름의 명을 어긋여 거슬으며<敬信 5>
 거스릴 횡 : 橫<註千 25>
 거사리다(攄逆)<國漢 p.378>

‘거스리다’가 20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스릴 소 : 派(兒學 下13)
 거슬니다 : (活) 逆らふ,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슬이다 : (活) ‘거슬니다’에 同. <上同>
 거스리다 : (他) ① 순종하지 아니하다. ② 거역하다. 배반하다. ③ 순리(順理)를 벗어나다. ④ 거죽만 붙에 태우다. <문세영, 朝鮮語辭典>
 거슬리다 : (他) ‘거스리다’와 같음. <上同>
 거스르다 : (동) ①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② 남의 말이나 가르침, 명령 따위와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③ (‘비위’, ‘신경’ 따위의 명사와 함께 쓰여)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거슬리다 : (동)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느낌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 <上同>

위를 보면, 어휘 ‘거스리다’가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朝鮮語辭典>까지는 ‘거슬리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거스리다’는 ‘거스르다’로 모음이 교체되고 ‘거슬리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 ‘거슬다’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슬다, 거스리다(逆)(15세기)>거스리다(逆)(19세기)>거스르다(逆)(20세기 후반)(현재도 같음)

5. 거우루

현대국어 ‘거울’은 15세기에 ‘거우루’였는데, 이 말이 조금 후에 ‘거우로’로 바뀌었다.

훈 각시 아츰미 粉 브르노라 햏야 거우루 보거늘<釋譜 24:20>
 물근 거우루 곧햏야<月釋 1:34>
 물근 거우루에 머므러실 나그내오(藻鏡留連客)<杜初 23:41>
 거우루 감 : 鑑<石千 30>

늘거 브료미란 볼근 거우로에 아노니(老罷知明鏡)<杜初 21:41>

김태곤

거우로 경 : 鏡, 거우로 감 : 鑑<訓蒙 中14>

이 말이 17세기에는 어형이 변화된 것을 보여 주는데, 다음과 같이 <杜詩諺解> 중간본에서 음운 단축된 어형 ‘거울’이 발견된다.

이에 가실이 와서 뺏린 거우로 써 드리티니(於是嘉實來以破鏡投之)<新續 烈1:2>

거울로 보든 붓그리노라(靚靑鏡)<杜重 1:50>

功業으란 즈조 거우를 보노니(勳業頻看鏡)<杜重 3:39>

이 말에 대한 18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거울 경 : 鏡<倭解 上44>

구리로써 거울을 삼으면(以銅爲鑑)<女四 4:3>

이 말에 대한 19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거울(鏡, 明鏡)<國漢 p.379>

거울 감 : 鑑<註千 30>

20세기에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울 : (명) 鏡.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울 : (명) ① 사람 기타 물체의 형상을 그대로 비추어 보는 기구. ② 광선을 반사하는 거죽. ③ 사물의 정당한 모범. 訓戒. <문세영, 朝鮮語辭典>

거울 : (명) ①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②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문학은 현실의 거울이라고 한다. ③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 ○ 그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될 만큼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에서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을 보면, ‘거울’의 뜻풀이 중 ②번 ‘광선을 반사하는 거죽’은 의심스러운 뜻풀이이다. 당시에, 광선을 반사하는 물체의 거죽을 ‘거울’이라고 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②번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과 ③번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의 뜻이 있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쓰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우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우루, 거우로(鏡)(중세)>거울(鏡)(17세기)>거울(鏡,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20세기 전반

기)>거울(鏡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현재)

IV. 語形 分化型

1. 간난하다

현대국어 ‘가난하다’는 한자어 ‘艱難’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된 중세국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王舍城으로 가며 길혜 艱難흔 사람 보아든<釋譜 6:15>
 艱難하고 외르뵈니<月釋 9:22>
 간난흔 전초로(飢荒의 上頭)<麟老 上27>
 간난티 아니흐려니와(不受貧)<麟老 下71>

이 말이 이미 15세기에 동음생략되어 ‘가난하다’로 쓰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음 예와 같다.

가난흔 사르물(貧人)<杜初 15:22>
 가난홀 빈 : 貧<訓蒙 下26>, <類合 下2>
 主人이 가난호므로 辭緣흐며(主人辭以窶)<宣內 1:3>

이 말이 17세기에 ‘간난하다’로 표기된 것과 ‘가난하다’로 표기된 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자 표기나 한자음 표기에 얽매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장춧 늘구매 艱難호물 시름호니(將老憂貧窶)<杜重 1:41>
 지비 간난호되 어미 효양호물 지그기 흐더니(家貧養母至孝)<東續 孝21>
 가난흔 사르물 여르물 머기리니(饑貧人實)<杜重 15:22>
 어버이 일 여히고 지비 가난타니<新續 孝4:22>

이 말의 18세기의 표기 현상은 17세기와 같다.

간난하고 과거흔 줄을 어엿비 너겨<女範 3>
 나홀 감흐면 간난흐며 우환을 만나며<敬釋 1>
 가난홀 빈 : 貧<倭解 上56>
 奢흐면 집이 가난흐느니라(奢則家貧)<女四 2:28>

김태곤

이 말의 19세기 표기 현상도 17세기와 같으나, ‘하다’ 표기가 아닌 현실음 ‘하다’ 표기를 하기도 한다.

가난하다(艱難)〈國漢 p.362〉. 간난하다(艱難)〈國漢 p.367〉

위의 예를 보면, ‘가난하다’와 ‘간난하다’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어 의미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에 소개하는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1920)에는 ‘가난’이 ‘간난’에서 비롯됐음을 밝히고 ‘간난’은 ‘艱苦’의 의미로 풀이했다. 그래서 이 어휘는 20세기 초에 어형이 ‘가난하다’(貧)와 ‘간난하다’(艱苦)로 분화된 것으로 본다.

가난 : (명) ‘艱難’(간난)의轉.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간난(艱難) : (명) ‘艱苦’に同じ. <上同>

간난(艱難) : (명) ①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 ② ‘가난’의 원말.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위를 보면, 現用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간난’을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으로 풀이하여 단어 ‘가난’과 의미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난하다’에 대하여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간난하다(貧)(15세기 중엽)>간난하다, 가난하다(貧)(15세기말)>

① 가난하다(貧)(20세기 초)(현재도 같음)

② 간난하다(艱苦)(20세기 초)(현재도 같음)

2. 거플

‘거플’은 중세국어에 ‘外皮’와 ‘鑄型’의 의미로 쓰였다.

① 外皮

거프리 떠디며<釋譜 23:18>

梗米 나디 한 도흔 마시 다 굿더니 거플 업고 기리 날굽 치러니<月釋 1:43>

거플 잇는 果實와 쓸 잇는 果實왜<月釋 23:94>

불휘를 버혀 거프를 갓마니(斬根削皮)〈杜初 16:57〉

거플 부 : 稭〈訓蒙 卜6〉

② 鑄型

模는 鑄物호는 거플이오<禪家 1:30>

이 말이 17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일레만 발견되지만 중세국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外皮

불휘를 버려 거프를 갖 마니(斬根削皮)K杜重 16:58>

이 말의 18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外皮

것거플 : 硬皮<譯補 47>

거플 업슨 나모 : 木亮子<漢清 10:27>

차 찻던 도희와 나무 거플을 섯거(雜以茶紙樹皮)K五倫 2:30>

며 꺾플 부 : 稱<倭解 下3>

나모 거플(樹皮)K同文 下44>

과실 거플(果子皮)K漢清 13:7>

위의 예 중 밑줄 그은 것은 원순모음화된 것들인데, 이로 볼 때 18세기에 ‘거플’이 음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거플’이 19세기에는 어형이 분화하여 ‘거플’과 ‘겹푸집’으로 나뉘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이 ‘겹푸집’이란 어휘가 등장한다.

겹푸집(型)K物名 五 金>

가. ‘꺼플’ 형

썩플 : (명) 外皮. (썩데기. 썩질. 古語 잡다기. 갑질. 꺾플)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꺼플 : (명) ‘겹질’과 같음. <문세영, 朝鮮語辭典>

꺼플 : (명) ① 여러 겹으로 된 겹질이나 겹데기의 층. 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여러 겹으로 된 겹질이나 겹데기의 층을 세는 단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조선총독부 간행의 사전을 보면, ‘거플’이 20세기 초에 경음화되어 ‘썩플’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세영의 <朝鮮語辭典>부터는 지금과 같은 어형인 ‘꺼플’로 표기된다. 의미는 ‘外皮’ 즉 ‘겹질’의 뜻인데 수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나. ‘거푸집’ 형

겹푸집 : (명) ① 糊にて 紙類を貼る時 糊つき悪しく又は空氣など入りて密着せざる空隙. ② ‘독 겹창’에同じ. ③ 體の外 貌.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푸집 : (명) ① 도배 또는 배접을 할 때에 잘 붙지 않고 들뜬 틈. ② 몸의 외양. ③ ‘두겹창’과 같음. ④ 물건의 외형을 만들어 놓은 것. <문세영, 朝鮮語辭典>

거푸집 : (명) ①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 鑄型. ② 풀 칠하여 붙인 종이나 천, 주물이나 도자기 따위의 한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서 들뜬 곳. ③ 몸의 겉모양을 낮잡아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세기에 어형이 분화하여 쓰이기 시작한 ‘겁푸집’은 20세기 초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것을 조선총독부 간행의 <朝鮮語辭典>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이 말의 어형은 20세기 중엽에는 ‘거푸집’으로 쓰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면을 더 살펴보면 20세기 초·중엽에는 ‘두겹창’(현어는 ‘두겹단’)의 의미로도 쓰였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대신 ‘몸의 겉모양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뜻으로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푸’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푸(外皮. 鑄型)(중세)>거푸(外皮. 鑄型)(18세기)>

① 거푸(外皮)(19세기)>엿푸(外皮)(20세기 초)>꺼푸(外皮)(20세기 중엽)(현재도 같음)

② 겁푸집(鑄型)(19세기)>겁푸집(鑄型. 도배 또는 배접을 할 때에 잘 붙지 않고 들뜬 틈. 두겹단이)(20세기 초)>거푸집(의미는 20세기 초와 같음)(20세기 중엽)>거푸집(鑄型. 풀칠하여 붙인 종이나 천, 주물이나 도자기 따위의 한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서 들뜬 곳. 몸의 겉모양을 낮잡아 이르는 말)(현재)

V. 語形 維持型

1. 갚다

‘갚다’는 어형이 중세국어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 당시의 8종성 표기법에 따라 ‘갓다’로 나타나지만 원음은 ‘갚다’이다. 그리고 의미는 ‘償還하다’, ‘報答하다’, ‘報復하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① 償還하다

내 네 비들 가과(我還汝債)<楞嚴 4:31>

내 네게 비들 가포미(我還債汝)<楞嚴 6:91>

빚 갓게 헉시니<三綱 孝9>

갓술 갓디 말라(不要還錢)<麟老 1:63>

② 報答하다

恩惠를 갑스바사 흐리라<釋譜 23:21>
 너희들히 能히 이리흐면 흐마 諸佛恩을 갑간디니라<月釋 18:18>
 恩惠를 갑품디니<月釋 23:98>
 報國은 나랏 恩惠를 갑스볼씨라<三綱 忠22>
 恩 가포물 브라디 말며<南明 上61>
 살에 흐삼을 갑호디 죽음을오써 흐며<報生以死><宣小 2:73>

③ 報復하다

邪曲흔 마리 이셔도 받고 갑디 마라<月釋 10:20>
 위흐야 원슈를 갑고져 흐야<欲爲之報仇><宣小 4:30>

이 말의 17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報答하다

므스그로써 皇天을 갑스옴고<何以報皇天><杜重 5:13>
 남금 갑스옴 네 엇데 더디리오<報主爾何遲><杜重 5:15>

② 報復하다

원슈 가포려 두로 사화<復讐轉鬪><新續 孝6:37>
 원슈 갑흐려 상복흐고<復讐喪服><新續 孝6:51>

이 말의 18세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報答하다

하늘 ㅁ든 ㅁ업슨 恩德을 어디 다혀 갑스오리<松江 下1>
 은혜를 베풀고 갑흐를 구치 말며<敬釋 2>

② 報復하다

세 아이 이셔 다 원슈를 갑고져 흐다가<女四 4:61>

이 말은 19세기에도 ‘값다’가 아닌 ‘갑다’로 표기되었다.

갑다<報也 償還 完璧><國漢 p.371>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자.

갑다 : (活) ① 返す. ② ‘되갑흐하다’에同じ.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값다 : (타) ① 남에게 받은 것을 그저 있지 않고 그에 적당하게 대답하다. ② 돌려 보낸다. ③ 대
값음하다. 안값음하다. <문세영, 朝鮮語辭典>

값다 : (동) ① 남에게 빌리거나 꾸는 것을 도로 돌려준다. ②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 따위
에 대하여 그에 상 당하게 돌려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에서 ‘되값음하다’는 현대국어 ‘대값음하다’로 ‘남에게 받은 은
혜나 원한을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報答하다’와 ‘報復하다’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어휘 ‘값다’는
어형과 의미가 15세기나 지금이나 같다.

값다(償還하다. 報答하다. 報復하다)(15세기~현재)

Ⅵ.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갓나히 (어형 소멸형)

이 말이 15세기에는 ‘계집아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19세기에는 어형은 ‘간나희’로 되고,
의미도 변하여 ‘娼女’의 뜻으로 쓰이다가 소멸되었다.

갓나히(계집아이)(15세기) > 간나히(계집아이)(16세기) > 간나희(娼女)(19세기)

(2) 거리다 (어형 소멸형)

이 말은 15세기에 여러 의미로 활발히 많이 쓰였는데 후에 소멸되었다.

거리다(건지다. 구제하다. 거르다)(15세기) > 거니다(구제하다)(16세기~17세기)(이 후 소멸됨)

(3) 가야미 (어형 변화형)

이 말은 20세기 초에 음절이 단축되어 어형이 ‘개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가야미, 개야미(蟻)(중세) > 개미(20세기 초)

(4) 갓꺄로 (어형 변화형)

이 말은 15세기에 ‘갓꺄로’로 쓰인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20세기 초부터는 ‘거꾸로’로 쓰이고 있다.

갓궤로(15세기)>갓고로(15세기)>궤구루(19세기)>거꾸로(20세기 초)(현재도 같음)

(5) 잦다 (어형 변화형)

이 말은 어형이 초성과 중성이 변하여 ‘꺾다’가 되고 의미도 확대되었다.

꺾다(칼 따위로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풀이나 털을 잘라 내다)(중세)>꺾다(앞의 의미에 ‘손톱이나 발톱을 베어 내다’를 추가)(17세기)>꺾다(17세기 의미에 ‘값을 낮추어 부르다’를 추가)(20세기 전반)>꺾다(20세기 전반 의미에 ‘체면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다’, ‘구기 종목에서, 공을 한옆으로 힘 있게 치거나 차서 돌게 하다’, ‘주었던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다’를 추가)(현재)

(6) 거슬다 (어형 변화형)

이 말은 어형이 원래 ‘거슬다’였는데 ‘거스리다’가 되고 20세기 후반부터는 ‘거스르다’가 되었다.

거슬다, 거스리다(逆)(15세기)>거스리다(逆)(19세기)>거스르다(逆)(20세기 후반)(현재도 같음)

(7) 거우루 (어형 변화형)

이 말은 후에 음절 단축이 되고 의미도 확대되었다.

거우루, 거우로(鏡)(중세)>거울(鏡)(17세기)>거울(鏡.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20세기 전반기)>거울(鏡.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현재)

(8) 간난하다 (어형 분화형)

‘간난하다’는 한자어 ‘艱難’에서 비롯되었는데 후에 동음 생략되어 ‘가난하다’라는 어휘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두 어휘는 ‘貧’의 의미로 동의어가 되어 함께 쓰였는데, 20세기 초부터는 각각 다른 의미인 ‘艱苦’와 ‘貧’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난하다(貧)(15세기 중엽)>간난하다, 가난하다(貧)(15세기말)>

- ① 가난하다(貧)(20세기 초)(현재도 같음)
- ② 간난하다(艱苦)(20세기 초)(현재도 같음)

(9) 거플 (어형 분화형)

‘거플’은 중세국어에서 ‘外皮’와 ‘鑄型’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의미에 따라 어형이 분화되어 ‘꺼플’과 ‘거푸집’으로 쓰인다.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태곤

거풀(外皮. 鑄型)(중세)>거풀(外皮. 鑄型)(18세기)>

- ① 거풀(外皮)(19세기)>엷풀(外皮)(20세기 초)>꺼풀(外皮)(20세기 중엽)(현재도 같음)
- ② 겹푸집(鑄型)(19세기)>겹푸집(鑄型. 도배 또는 배접을 할 때에 잘 붙지 않고 들뜬 틈. 두겹단 이)(20세기 초)>거푸집(의미는 20세기 초와 같음)(20세기 중엽)>거푸집(鑄型. 풀칠하여 붙인 종이나 천, 주물이나 도자기 따위의 한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서 들뜬 곳. 몸의 겉모양을 낮잡아 이르는 말)(현재)

(10) 갚다 (어형 유지형)

이 말은 15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형과 의미가 변하지 않고 있다.

갚다(償還하다. 報答하다. 報復하다)(15세기~현재)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서울: 박이정.
- 김태곤(2008). 국어어휘의 통시적 연구. 서울: 박이정.
- 南廣祐(1965). 國語學論文集.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 文世榮(1938). 朝鮮語辭典(영인본). 서울: 대제각.
- 成煥甲(2010). “固有語와 漢字語의 調和”, 語文研究, 145호. 서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이영경(2008). “형용사 ‘싸다’의 統辭·意味에 대한 史的 高찰”, 語文研究, 139호. 서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조선총독부 편(1920). 朝鮮語辭典(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Words

Kim, Tae-g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how some Korean words, such as “Gasnahae(갓나희), Georida(거리다), Gayami(가야미), Gagoro(갓그로), Gakda(갓다), Geoseulda(거슬다), Geouro(거우로), Gannanhoda(간난희다), Geopeul(거플), and Gapda(갓다)”, changed their word-forms during the period from the 15 century to the 20 century.

The study is based on the aspects of changes in word-forms during this period: ① a death of word-forms, ② a split of word-forms, ③ a change of word-forms, and ④ a retention of word-forms. The study also shows how some words of the 15 century changed in terms of a phoneme and meaning. Word materials in the old Korean book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nclusions studied; ‘Gasnahae’ disappeared after using changed from the meaning of ‘a young girl’ to the meaning of ‘a prostitute’ at 19 century. and other example, ‘Georida’ disappeared after using until 17 century as the meaning of ‘relieve’.

<Key words> Vocabulary, Change, Word-form, Meaning

